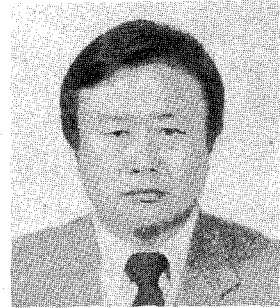


양계산업 안정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지 설 하

국립중축장장, 농학박사
농수산부 축산국장 역임



월간 양계지의 창간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난 14년동안 여러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국내의 최신 양계기술의 보급과 생산성 향상, 양계 관측자료 및 축산기술정보의 신속한 게재와 양계산물의 소비촉진 등 양계전문지로서, 또한 축산정책의 홍보와 아울러 양계인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자로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온 「월간 양계」지 발행에 관계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축산분야 중에서 양계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사육수수 뿐만 아니라 사육관리면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75년부터 '78년 사이의 경제고도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계산물(鷄產物)의 수요가 급증하여 양계업자는 생산시설의 확장과 사육수수 증가에 치중하므로써 과잉생산을 가져왔고 '79년 이후의 유통과동과 생산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특히 양계산업은 좀처럼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양계인의 길잡이로서의 「월간양계」지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보겠다. 이제 양계산업이 안정된 기반위에서 발전하여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축산인 모두가 협력해서 문제해결에 참여하여야만 하겠다.

양계업은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그만둘 수 있는데다 증식속도가 빨라서 단기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조건에 따라 사육수수가 증감되기 때문에 생산과잉과 과소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생산의 조절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양계산업의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제육이나 제란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물의 적정공급이 되도록 생산자등록 및 쿼터제 실시와 같은 강제적 통제방식이 있으나 계열생산을 통한 자율적인 생산 조절방식과 양계 생산단체에서의 자율적인 조절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것은 개개 양계농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나 생산자가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협동조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과잉생산에서 오는 가격하락을 정부가 공급조절기능을 한다하더라도 일정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산자들의 협조없이는 어렵다고 보겠다.

계산물의 가격불안정의 해결방안으로서는 전근대적이고 비능률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즉 생산과 소비를 직결시키도록 유통조직을 체계화시키고 유통 및 가공처리시설의 과감한 투자로 생산물의 공급조절 및 유통개선을 기하여야겠으며 또한 제란과 계육의 소비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양계생산물의 규격화, 등급화 및 포장방법의 개선을 통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조리의 다양화로 품질과 기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양계생산물의 우수성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층의 저변확대에 힘써야 되겠다.

또한 양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산물의 생산효율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양계업에 있어서 사료비는 전체 생산비의 70~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료품질과 안정성은 양계경영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 사료원료는 대부분 해외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산옥수수과 보리 등 국내 부존자원의 증산으로 도입량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외사료곡물의 안정적확보를 위하여 도입원료와 도입선의 다변화로 적기에 적량을 도입토록 하고 배합사료공장의 시설근대화과 제조기술의 향상을 통해 사료효율을 개선토록 하여야겠다. 또한 사료의 안전성으로 배합사료의 병원미생물 오염에 의한 질병전파, 배합사료중의 독성 및 유해물질혼입 등 사료위생문제에도 유의하여 원료사료의 구입에서부터 저장, 제조, 판매의 각 과정마다 철저한 품질관리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산종계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1960년 초반부터 외국종계가 수입되다가 '73년에는 국산계개발을 목표로 외국계수입이 금지되어 국산계가 개발 보급되었으나 종계생산 기반의 빈약으로 새로운 수입계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축산인으로 항상 마음아픈 점이었지만 현재 국가기관에서 국산종계 개발사업에 착수한 것은 펍 다행스런일이다. 한편 양계 농가의 초생추구입에 지침을 주고 나

아가 닭 개량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닭 경제능력 점정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양계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일은 질병의 예방이다. 근년에 유행되는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은 양계업의 안정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이란 새로운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번져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질병발생에 의한 피해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평소에 예방백신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방역이란 개개농장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지역단위로 생산자들이 협동하여 시기에 알맞은 공동방역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낭비와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되겠다.

이외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양기술의 도입, 시설의 근대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 꾸준한 연구발전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기관이나 특히 양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양계인이 주체가 되어 공동노력과 협동이 간절히 요청된다 할 수 있겠다. 이에 「월간양계」지는 국내외 산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생산과 공급의 수급조절, 계산물의 소비확대, 생산성 향상 등 안정된 양계산업의 길잡이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찬사와 경의를 표하며 축산발전을 위한 양계 전문지로 계속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 버어마 아웅산 참사로 순국하신 호국영령
- 여러분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 국민화합 이룩하여 북괴야욕 분쇄하자